

광주·전남 근로자, 전국 평균보다 못 번다

5인 이상 사업체 평균 상용월급여액

5인 이상 사업체를 다니는 지역민들의 지난해 월 급여는 광주 328만원·전남 344만원으로,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 급여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1년 사이 2.8% 오르며 가장 짙금 월급이 오른 지역으로 조사됐다. 14일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5인 이상 사업체 평균 상용월급여액은 광주 328만4556원·전남 344만5263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6%(14만3345원)·2.8%(9만3183원) 증가했다. 상용월급여액은 4월 급여계산 기간 기준으로 연 1회 작성한다. 세금공제 전 기준으로, 상용정액급여와 상용초과급여를 더한 금액이다.

지난해 광주 328만원·전남 344만원...각 4.6%·2.8% 올라

광주건설업 348만원·전남 운수창고업 371만원 '최다 인상'

전국 평균 상용월급여액은 371만7328원으로, 전년대비 3.8%(13만5764원) 올랐다. 전국 평균 급여를 웃도는 시도는 서울(408만원)과 경기(375만원), 울산(373만원) 3곳뿐이었다. 광주는 제주와 전북, 대구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낮았다. 광주 평균 상용월급여액은 지난 2020년 299만원에서 이듬해 314만원으로 처음 300만원을 돌파했다. 전남 평균 급여는 전국 9위를 차지했는데, 1년 전보다 급여가 오를 폭과 비율이 17개 시도 중 가

장 낮았다. 급여 인상 폭과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6.0%·21만원↑)이었다.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평균 급여가 가장 많은 업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의 지난해 급여는 광주 537만원·전남 551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0.4%·1.8% 오르는데 그쳤지만 가장 높은 금액이었다. 급여 인상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광주에서는 '건

설업', 전남에서는 '운수 및 창고업'이 꼽혔다. 광주 건설업 평균 급여는 348만원으로, 1년 전보다 9.2%(29만원) 올랐다. 전남 운수 및 창고업 급여는 371만원으로, 전년대비 6.4%(22만원) 늘었다. 반면 광주 교육 서비스업은 0.2%(353만→352만원) 줄며 유일하게 감소세를 나타낸 업종이었다. 전남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급여(266만→265만원)가 유일하게 줄었다. 광주·전남에서 평균 급여가 300만원을 넘지 않은 업종은 '부동산업'(광주 252만원·전남 238만원)과 '숙박 및 음식점업'(광주 238만원·전남 266만원),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광주 281만원·전남 265만원) 등 3개 업종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평균 급여는 광주 344만원·전남 393만원

으로, 1년 전보다 각각 4.0%·5.2% 늘었다. 전남 제조업 급여는 전국 평균(384만원)을 웃돌았지만, 광주는 이를 밑돌며 전국에서 6번째로 낮았다. 제조업 급여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종사자 5~299명 중소 규모 제조업체의 평균 급여는 광주 319만원·전남 361만원이었지만, 300인 이상 업체는 광주 402만원·전남 479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주 중소 규모 제조업체 급여는 제주(285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다. 300인 이상 제조업체 급여는 전남이 5번째로 높고, 광주는 뒤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혈액 수급난 극복 동참 광주신세계 이동훈(왼쪽) 대표이사과 임직원들이 14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점포 앞에서 '2023년 상반기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열고 혈액 수급난 극복에 동참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은행 펀드 가입하고 문화상품권 받으세요

4월 30일까지

광주은행은 오는 4월30일까지 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사 이름은 '펀드 가입하고 문화상품권 받고'이다. 광주은행은 KB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월 10만원 이상 적립식 가입하거나 500만원 이상 거치식으로 가입하는 개인 고객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운용사별 최대 5만원)을 준다. 적립식 펀드 가입 때는 적립금액 10만원당

5000원씩 최대 2만5000원, 거치식 펀드 가입 때는 신규 금액 500만원당 5000원씩 최대 5만원 상당 모바일 문화상품권 지급한다. 상품권은 마케팅 동의를 하는 고객에 한해 오는 6월 중에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kjban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중화 WM(자산 관리)고객부장은 "요즘과 같은 조정 장세에서는 미래 성장에 기대되는 우량 자산에 장기 분산투자할 것을 권유한다"며 "우량 자산 펀드에 가입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찾는 금융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금호타이어 유튜브 채널 '엑스타 TV' 코너 신설

포로로로 챌린지·3분 타이어 등 17일까지 포로로로 굿즈 증정



금호타이어가 유튜브 공식 채널 '엑스타 TV(@ECSTATV)'에서 신규 코너를 선보이며 소비자들과 소통에 나서고 있다. 1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엑스타 TV'는 2019년 4월 개설 이후 약 2년 만에 구독자 10만명을 돌파, 유튜브로부터 실버 버튼을 받았다. 이달 기준 구독자 13.5만명으로 국내 타이어 기업 중 최대 유튜브 구독자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신규 코너는 2가지로 '포로로로 챌린지', '3분 타이어'이다. '포로로로 챌린지'는 금호타이어의 대표 광고 캐릭터인 포로로로가 매일 직접 거리로 나가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캐릭터 스트리트 대결 콘텐츠다. 해당 콘텐츠는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며, 17일까지 참여자 중 10명을 선발해 포로로로 후드티를 증정한다. '3분 타이어'는 타이어의 역사, 스펙 등 타이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3분 안에 알기 쉽게

구독자에게 전달하는 코너다. 윤장혁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상무는 "엑스타TV는 금호타이어와 소비자들의 소통 접점을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표 캐릭터인 포로로로를 통해 기업과 타이어라는 저관여 제품에 대한 브랜드 선호도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의 '포로'와 '로로'는 2010년 개발된 캐릭터로 소비자들에게 타이어의 기능과 안전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금호타이어'라는 기업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있다. TV광고, CGV 극장 대피도 안내 광고 및 골프존 비상대피도 안내 광고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삼성 '갤 S23 시리즈' 국내 사전판매 신기록

1시간 40분만에 109만대 완판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 시리즈가 국내 사전 판매에서 109만대가 팔리며 갤럭시 S 시리즈 중 최고 기록을 세웠다.

삼성전자는 최근 일주일간 진행된 갤럭시 S23 시리즈 국내 사전 판매에서 총 109만대가 판매됐다고 14일 밝혔다.

사전 판매가 시작된 지난 7일 자정 삼성닷컴 라이브 판매 방송에서 1시간 40분 만에 준비된 수량이 모두 완판됐다. 이는 역대 라이브 방송 최대 판매 기록이다.

갤럭시 S23 사전 판매 혜택으로 256GB를 사면 512GB로 기본 스토리지를 2배 업그레이드해 주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과 울트라 1TB 모델을 구매할 경우 '갤럭시 워치 5' 44mm 블루투스 모델을 주면서 사전판매 호응을 이끌어 냈다는 분석이다.

사전 판매된 109만대 중 울트라 기종이 65만대로 전체 60%를 차지했으며, S23 플러스는 약 17%, 기본 모델 S23은 23%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색상은 삼성닷컴 판매 기준으로 그라파이트와 스카이 블루의 인기가 높았다.

한편 갤럭시 S 시리즈 사전 판매 기록 직전 최다 1년 전 출시된 갤럭시 S22로, 지난해 2월 8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101만7000대 판매 기록을 가지고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 중에서는 2019년 11월 진행된 사전판매에서 138만대가 팔린 갤럭시 노트10이 역대 최다 사전 판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공정위, 카카오T에 과징금 257억 "독과점 확대"

카카오T "행정소송 강구"

택시 호출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 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해 행(공정거래법상 시장배치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뉜다.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하는데 압도적인 독

과점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는 게 공정위 결정의 요지다. 가맹 기사는 비가맹 기사보다 호출 수행 건수가 월평균 약 35~321건 많고 운임 수입도 1.04~2.21배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의결서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일반 호출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그 이행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을 통한 승차 거부 해소 및 기사 영업 기회 확대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택·왼쪽 2번째)와 농협 강진군지부 임직원들이 강진군에 고향사랑기부금 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농협 임직원, 화순·강진에 고향사랑기부금

농협 임직원들이 고향인 화순과 강진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화순이 고향인 고성신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장과 정재현 NH농협은행 전남본부장, 김경수 동북농협 조합장, 김종명 농협 화순군지부장 등 7명은 14일 화순군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화순군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주민 문화예술·보건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날 기부자들은 전달식 이후 구북구 화순군수와 만나 화순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농협 강진군지부도 강진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담레공을 받을 수 있는 기부제도이다. '고향사랑'을 홈페이지와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참여 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돈잔치' 은행들 고강도 현장검사 이뤄진다

금감원, 총당금 적립 수준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의 '돈 잔치'를 비판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결산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매년 초 진행되는 정기적인 결산검사이지만 윤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던 만큼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면밀히 살피는 고강도 검사가 이뤄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10개 은행에 대한 결산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결산검사는 매년 초 주요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들여다보는 정기적 성격의 검사로,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과 대출채권의 자산 건전성 분류 적절성 등을 점검한다.

윤 대통령이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은행권의 막대한 이익이 과도한 성과급과 퇴직금에 지급된 것을 비판한 만큼, 이번 결산검

사에서는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예년보다 강도 높게 따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임원회의에서 은행권의 손실 흡수 능력 확충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결산 검사 등을 통해 대손충당금, 자본 여력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토록 유도해 향후 위기 상황에서 본연의 자금공급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손실흡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총당금 추가 적립을 유도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65.64(+12.94)
↑ 코스닥	779.58(+7.03)
↓ 금리(국고채 3년)	3.429(-0.023)
↓ 환율(USD)	1269.40(-7.90)